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길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0/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05용마의 밤  
1,100여명 모여  
감동 속 격려

## 동문성악가가곡 신사 행운기원 퍼포먼스 인기

지난 12월16일 저녁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05용마의 밤 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용마가족 1,100여 명의 열정과 감동이 충천한 한마당이었다(사진).

서막은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화려한 오색 조명 속에서 추억의 7080 힙트곡들이 색소폰 선율을 타고 수놓아졌고, 역대 용마의 밤 하이라이트와 휘황찬란한 레이저쇼가 신선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축제 2부 기념식은 오후 7시30분 김병수 사무국장(22회)의 사회로 막을 열어 개회선언(손부홍 부회장·15회)·내빈소개·회장 기념사·격려사(권오현 고문·1회)·축사(홍용찬 재경동창회 차기 회장·16회)·축하케이크 커팅·축배

## “도약의 새 지평 위해 ‘결속띠’ 펼치자”

(김근준 고문 제의·1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강태 본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용마의 밤 축제는 우리 용마가족의 자존심”이라며 “도약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화합과 결속의 용마띠를 무한히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내빈소개에서는 안강태 본부 회장을 비롯,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우명수(5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열(8회) 정행권(9회) 본부 고문과 김병기 오완수 협정춘(이상 11회) 자문위원, 김경희(9회) 재경고문과 홍용찬(16회) 차기 재경회장, 권명미 경남고 교장, 국회의원인 유기준(32회) 동문 등이 인사, 박수를 받았다.

또 본부 부회장인 손부홍(15회)

송규정(16회) 남진현(19회) 이재호(21회) 박홍조(울산회장·22회) 김두천(26회) 최강호(28회) 김대욱(29회) 최거훈(30회) 정성윤 동문(39회), 박호문(15회) 재경 사무국장, 마산·창원동창회 정상국(29회) 사무국장 등이 객석에서 인사,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제4부 신명풀이 버라이어티쇼는 오후 8시10분경 뷔페식 만찬이 끝날 무렵 모교 응원단장 출신인 김영화(29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 고전무용가 2명의 아름다운 춤사위 속에서 행위예술가 송강 김대현씨가 용마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막복을 울렸다. 커다란 붓끝에서 용마, 학, 하회

### 행운대상 최영수(11회) 차지

이날 만찬과 공연 사이사이에 추첨된 행운상은 50여 동문들에게 안겨졌다.

▷행운대상(김치냉장고) 최영수(11회) ▷특상(오디오) 장인종(26회) ▷금상(공기청정기) 송영주(46회) ▷은상(DVD) 여성근(24회) ▷동상(무선전동포트) 박복수(26회)이 각각 수상

했다.

한편 축하 화환은 부산 시내 중고 재경동창회협의회(회장 김경희 재경고문·경북중고동창회(회장 한재희)·동래고동창회(회장 김병규)·동아고동창회(회장 김길출·18회·한국주철관 대표)·부경고동창회(회장 노종현)·(주)부산롯데호텔(대표 이종규) 등에서 보내와 행사를 빛내주었다.

리튼으로 ‘산촌’, ‘금단의 노래’를 선물했다.

피날레는 나훈아 김건모 조용필 등 인기가수 모창 전문가 나건필의 열창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이날 축제는 교가 제창에 이은 사회자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오후 9시10분경 막을 내렸다.

### 얼굴

#### 박시환(26회) 대법관 발탁



박시환 동문(26회·사진)은 변호사 재임 중 최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현재 용마대법관으로는 양승태(20회)과 박동문 등 2명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문은 이대학 대학원을 수료한 후 해군법무관으로 활약하다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 수료)한 후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5공 당시 ‘법관인사파동’의 주역으로 꽉찬 박동문(반정부 가두시위 위반 즉심대상 대학생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영월지원 좌천이 도화선)은 이후 사법개혁을 줄곧 건의했고 대법관 제청과문 당시 대법원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박동문은 국가보안법 관련(96년 국보법 피의자만 3차례 구속기간 연장함에 반발)과 병역법 관련 조항(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민·형사 단독판사 △전주·인천·서울 남부·서울지법 부장판사 역임.

## “내년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참여를”

고 문	서재원	1반대표	이태욱
	예진원	2반대표	최용석
	정원철	3반대표	정용식
회 장	임태영	4반대표	이성대
부회장	김병주	5반대표	이 기
	노인철	6반대표	이승배
	옥진형	7반대표	유태문
감 사	한시용	8반대표	배진수
수석총무	한수열	9반대표	서재원
이과총무	정용식	10반대표	추영준
문화총무	김성진	11반대표	김성진
		12반대표	한영탁

### 제40회동기회

이 사	강병룡
	김강범
	김경환
	김기수
	김동형
	김병수
	김영진
	김용오
	김재민
	김정대

김정일	배영진
김철홍	백성대
김춘강	변태경
문기성	성봉진
문태영	이 사
	손옥명
	신정업
	박근식
	박동성
	박재현
	배병훈

윤경학	최민한
이기록	최성우
	이상백
	이정삼
	이태근
	이호진
	장갑구
	장정욱
	조상원
	조찬우
	본부홈커밍데이추진위원장 정원철
	재경홈커밍데이추진위원장 김승환

## 송년사

홍용잔

제16회·재경동창회 차기 회장·우성해운 대표



존경하는 본부동창회 선후배 동문님들,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인사를 올립니다. 재경동창회는 도무지 후배들이 올라오지를 않아 걱정인데 본부는 대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솔직이 샘도 좀 납니다.

저희가 경고에 다닐 때는 국민소득이 일인당 100달러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 1만5천 달러를 넘깁니다. 그 동안 부산은 세계 5대 항구가 되었고, 해운은 8위 그리고 세계 1위의 조선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서부터 바다를 동경하며 성장해온 우리 경고인들이 한 끗 크게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했고 부산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반수, 해수부장관을 셋씩이나 낳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항 때문에 부산은 뭐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어딜 가나 컨테이너 트럭 등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는 핏줄이 안 통하고 혈관이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중장비 짐차가 시내 한가운데를 누비는 도시가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까?

고속철도를 빨리 뚫어야 승객을 실어날라 기존 철도를 물류에 사용해 부산 주변 도로가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여승이 도마뱀이 불쌍하다고 단식을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뚫던 터널도 멈추게 했는데 부산 시민이나 우리 동문은 왜 끌 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그까짓 길 좀 막혀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철도와 도로가 무슨 상관이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부산이여, 깨어 일어나라!

이제 때마침 신항만이 개장되는데 차제에 본부 동문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항으로 여유가 생긴 컨테이너 전용부두에는 그 동안 부산의 중심에 자리잡아 교통지옥의 원인을 제공해 온 재래부두를 뚫기고 그 자리를 HKG처럼 상업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서울 사람들은 땅 살 생각부터 하는데….

서울은 청계천을 복원해서 낭만이 넘치는 명물을 만들었는데 부산은 우리 영남의 대동맥인 낙동강이 오염되어 썩어 문드려져 내리는데도 이를 준설하려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비용이 엄청나다구요? 광양항이니 새만금. 무슨 국제공항 등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공사에다 수십 조씩 쏟아붓는데 왜 낙동강은 살리면 안 됩니까? 낙동강 천정천을 준설하면 막대한 모래가 나오므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 청정해역이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고 홍수도 없어질 것이며 깊어진 강은 유럽의 3대 항구인 앤트워트·로테르담·함부르크처럼 물류 운하가 되어 신항만으로 바로 연결되고 따라서 고속도로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언제 또 부산 출신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기회에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는 묘안을 찾아 실리를 챙기도록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해를 잘 보내시고 내년 개의 해에 슬기롭게 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개팔자가 상팔자라 하는데 크게 대박 터뜨리기를 기원합니다. 후라 경고! 감사합니다.

## 본부이사회·회장단 회의 개최

## 05용마의 밤 행사 계획안·골프대회 중간결산보고 등 승인

본부동창회는 '05용마의 밤 행사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사진)를 지난 11월2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회관에서 열었다.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선조 선 대표이사)에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12월16일 저녁 서면 롯데 호텔에서 개막하는 '05 용마의 밤 축제 프로그램과 홍보대책,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이를 승인했다.

한편 안강태 본부회장은 앞서 같은 달 9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회장단회의를 주재, 제8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중간결산보고 등을

통과시켰다.

또 본부 2차 이사회와 용마장 학회 이사회, '05용마의 밤 행사 일정 등을 재확인했고, 경남고 야구부 용구비와 기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심의했다.



윤진현(7회)

국민훈장 석류장 받아



윤진현 동문(7회·전 동아대 교수·사진)은 지난 10월24일 정부로부터 '사회발전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중앙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윤동문은 미국 유니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도 활약했던 윤동문은 대통령 표창(두 차례)과 대통령 공로장 등을 받았다. <사회복지론> <한국독립운동사> 등 저서 다수.

송규정(16회)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규정 동문(16회·부산상의 회장·사진)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에서 피선됐다.

서울대 사학과와 이 대학 경영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 동명 철강상사를 창업했고 윈스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부산상의 회장에 당선됐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인 송동문은 미국 하와이대 이스트-웨스트센터에서 경영 연수를 했다. 현재 부산시체조협회 회장.

이채언(16회)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이채언 동문(16회·인제의대 교수·사진)은 최근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신임회장에 뽑혔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이동문은 부산의대 조교수를 거쳐 인제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동래백병원 종합건강진단관리소 소장 직을 겸하고 있다.

특히 동기회 회장을 역임한 이동문은 기독동문 모임인 용마신우회 회장으로 현신했다.

강명득(24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강명득 동문(24회·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재임 중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임명됐다.

서울대를 졸업한 강동문은 단국대 대학원을 수료했고 삼현여고와 강서여중에서 교편을 잡다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변호사(86년~02년 5월)로 활동했다. 경실련 베트남사업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등 역임.

## 각 동기회·지역회·직능회 '05정기총회 겸 송년회

을유년이 역사의 뒤판길로 사라지고 있다. 각 동기회·지역회·직능회는 이쉬움을 달래기 위해 12월 중 '05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잇따라 개최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제13회재경동기회=13일 오후 6시 서울 GS타워 아모리스홀 B홀(옛 LG타워)에서 김종의 회장 주재.

△전남지역동창회=9일 오후 7시 동광양시 중마동 김포횟집에서 박정근 회장(21회) 주재.

△울산지역동창회=8일 오후 7시 울산

롯데호텔 2층에서 박홍조 회장(22회) 주재.

△마산·창원지역동창회=8일 오후 6시30분 경남 창원시내 인터내셔널호텔 5층에서 여환부 회장(21회) 주재.

△동대회=6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동백홀에서 최원종 회장(21회) 주재.

△용마회(부산시 공무원 동문)=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신관 1층 동백홀에서 정영석 회장(24회) 주재.

한경 사랑의 회장실 문외를 추구합니다. 막힘 있는 초절수의 진공식 번개 시스템  
특허 제품!!

GOLF 5th  
동경회장배 생활  
제5회 용마골프대회

제16회 재경동창회 차기 회장 우성해운 대표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051-557-7777  
제37회동기회 임원 명단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051-557-7777  
제37회동기회 임원 명단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051-557-7777  
제37회동기회 임원 명단

## 재경동창회 신임 회장 홍용찬(16회) 선출

## 정기총회-신년회 동시 개최

재경동창회 2005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천신일 회장(15회·세종 회장) 주재로 열려 홍용찬 수석부회장(16회·우성해운 대표 이사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사진).

이날 총회는 제1부 기념식에서 내빈과 회장단 소개, 장학증서 수여, 제37회 기별야구대회 시상, 천신일 재경회장 인사, 안강태 본부회장 축사, 정동식 재경 명예회장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경과보고와 결산보고·예산안 의결, 개정회칙안 통과, 차기 회장 선출과 취임사 등 순으로 진

행됐다(사회: 박호문 사무국장·15회).

이날 행사에는 정동식 재경 명예회장(1회·본부 고문)과 한준석(3회) 문택상(4회) 박종구(5회) 박영식(7회) 김경희(9회) 신준호 고문(14회), 천 회장과 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안강태 본부 회장(11회)과 황유명 총무(29회), 양승태(20회) 박시환 동문(26회) 등 두 대법관, 국회의원인 박희태(11회) 김기춘(12회) 권철현(19회) 정갑윤(23회) 이재웅(26회) 유기준 동문(32회), 오거돈(21회) 해양수산부 장관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천신일 재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하



는 동창회, 재미있는 동창회, 서로 돋는 동창회가 되게끔 적극 성원해주신 용마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강태 본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도약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자”며 “임기 중 모교 60년사를 편찬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회칙 10조 2항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한다’를 ‘정기총회는 신년회와 동시에 개최한다’로 하는 개정회칙안을 통과 시켰다.

홍용찬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선양과 발

전,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제2부 ‘가곡의 향연’은 강무림(테너) 김은주(소프라노) 유흥희(메조소프라노) 등 세 교수의 가곡 열창으로 수놓아졌다(오후 9시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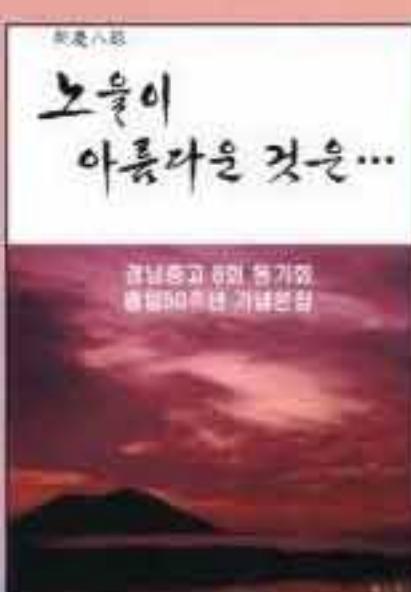
▲장학금(각 400만원) ▷대학 재학 동문=이창현(53회·서울대 2년)·허민(58회·서울대 1년)·이영록(58회·연세대 1년) ▷동문 자녀=이남희(22회 이상석 동문 아들·홍익대 4년)·이정우(22회 이현수 동문 아들·한남대 3년).

▲기별야구대회 ▷단체상=우승 제35회(우승 기)·준우승 제34회(준우승컵)·3위 제31회·4위 제24회·응원상 제41회(이상 트로피)

▷개인상=최우수선수상 이태원(35회)·홀런상 이종구(24회)·우수상 주정숙(31회) 백종문(34회) 남기호(35회)·미기상 변중석(24회) 고영호(31회) 최인석(34회)·타격 1위 김한조(34회)·타격 2위 김성일(41회)·타격 3위 김태진 동문(19회·이상 메달 및 부상).

## 졸업50돌 기념문집 <신경팔록…>출간

제8회동기회, 동문·가족 글 59편 실려



추경석 김영학 지창수 박재범 이창근 동문이 각 100만 원, 이유환 이영창 김영환 홍기성 동문이 각 50만 원, 문국 박동열 동문이 각 30만 원, 박희옥 김호석 배주원 동문이 각 20만 원을 특찬했다.

### 재경회장 김동훈 선출

재경경팔회는 지난 1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05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제21대 회장에 김동훈 동문을 선출했다.

이규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 43명과 부인 17명이 참석, 성황리에 열렸다.

총회는 이 회장의 회계보고와 노재복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제2부 송년잔치는 노래자랑 등으로 엮어졌다.

제8회동기회는 졸업50주년 기념문집<신경팔록-노을이 아름다운 것은…>을 최근 펴냈다.

졸업 40주년 기념문집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문집은 신국판 320쪽으로 동문 41명의 글 47편과 가족의 글 12편이 실렸다.

경팔회의 저력이 행간마다 배인 이번 문집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자존심의 소산이다.

<신경팔록…> 제작을 위해

제2부 송년잔치는 노래자랑 등으로 엮어졌다.

제2부 송년잔치는



제14회 부산·서울 113명  
단풍 만발한 덕유산 합동 등정

제14회동기회 경부합동등산대회가 지난 10월30일 단풍물결로 수놓아진 전북 무주 근교 덕유산 기슭에서 동문-가족 113명(부산 50명·서울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날 행사는 김용호 부산회장과 이현영 재경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김재도·박진 부산·서울 등산회장이 리드한 산행에서 A조는 덕유산 정상까지, B조는 백련사까지 강행군했다.

일행은 오후 1시 넘어 부산의 본부동기회가 마련한 전주진미식당에서 산채비빔밥으로 허기를 달렸고 다채로운 안주에 김해

청주와 시원소주로 단합회를 벌였다.

앞서 박청홍 사무국장(부산)의 사회로 진행된 단합회는 김용호 회장과 이현영 수석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과 부산에서 준

비한 기념품을 교환했고, 한없는 정답과 박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부산에서는 구자신 남우준 신준호 동문이 전기밥솥과 술을, 서울에서는 한수길 박진박 실 정정화 유희섭 김계순 동문이 기념품을, 김영치 이창하 이현영 조규향 동문이 특찬금을 각각 페척했다. 일행은 오후 5시 경 작별의 악수를 나눴다.

## 14K산우회 300차 기념산행

### 부부동반 36명 금정산 오른 후 송년잔치

지난 1988년 8월 출범한 제14회 산우회가 300차 산행을 기록, 자축연을 치렀다.

제14회 산우회(일명 14K산우회)는 지난 12월4일 300차 기념 산행을 어린이대공원~금정산

남문~식물원 코스에서 실시한 후 민속한정식에서 송년회를 베풀었다.

김재도 산행대장이 리드한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 36명이 참석, 우의를 다졌다.



롯데기 야구대회에서 4연패를 기록한 경남중 야구부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면 오른쪽은 노재환 감독.

## 경남중 롯데야구 4연패 위업

### MVP 이현민·우수투수상 이인승 차지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이 지난 11월 6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롯데기 초·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 대회 4연패의 영광을 누렸다.

노재완 감독이 이끄는 경남중

은 이날 부산중과의 결승전에서 홈런 3방을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려 9-2로 대승했다.

경남중은 2-1로 앞선 5회말 최규국의 홈런 등으로 3점을 추가해 승기를 굳혔고 6회말 이현

민·김봉식의 잇단 안타로 패권을 쟁취했다.

이날 최우수선수상은, 결승전에서 2점 홈런을 날린 이현민군(3루수)이, 우수투수상은 이인승군이 차지했다.

### 일오기우회장 서정욱

일오기우회(제15회 바둑모임)는 지난 10월2일 오후 9시 부산회식당에서 임시총회

를 열어 서정욱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서 신임회장은 총무에 조일랑 총무를 유임시켰다. 이승남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전날 재경 보름기우회가 주관한 경부합동바둑대회에 참석한 13명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해단식을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 제 6 회

金奎虎=12월4일 부산 해운대 마리아나센터에서 아들 유석군 결혼. 051-521-5336

### 제 8 회

이종수=12월5일 서울 강남 웨딩문화원에서 장남 정원군 결혼

### 제 10 회

高光守=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1184-3번지. 017-568-5877  
李奉源=12월17일 부산 국

민연금관리공단회관 3층에서 아들 주명군 결혼. 011-587-0504

### 제 11 회

朴炳祚=11월17일 부산 덕천동 부민병원에서 별세.  
河容武=11월19일 부산 목화예식장에서 차남 회성군 결혼. 051-752-3904 · 019-534-3904

### 제 13 회

權川道=10월24일 장인 별세  
金幹雄=12월26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충무홀에

### 어디서 무엇을

서 장녀 남희양 결혼  
文炯才=11월18일 부인 별세

朴東一=10월14일 별세  
朴英珠=이건산업 회장. 10월25일 한국매세나협의회 제5대 회장에 취임

백명호=내년 1월14일 메리트호텔에서 2시에 딸 결혼

玉鍾漢=12월17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차

## 허굴산원정대 엉뚱한 산속으로

### 죽을 고생 생

경남 학천의 허굴산에 오르기로 한 일육산악회 산꾼들이 현지에서 합류한 이곳 토박이 친구의 말만 믿고 따라나섰다가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 죽을 고생(?) 끝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서태복 산행대장이 리드한 일육산악회 허굴산원정대는 지난 10월16일 오전 10시 학천에 도착. 이곳 터줏대감(?)이라고 큰 소리쳐 온 이명수 동문이 느닷없이 "이곳 산들은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게 맡기라"며 산행대장을 고집했던 것.

서 대장을 비롯한 일행은 그의 말만 믿고 나섰다. 한참을 가다가 이 동문은 "아, 이 길이 맞나? 아닌가?"를 자주 내뱉었다. 그러다보니

벌써 엉뚱한 금성산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모두들 "토박이×도 못 믿겠네!" 하며 웃음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학천 토박이는 "아, 친구들아! 최소 1년에 한 번쯤은 이쪽으로 와야지. 학천에 좋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있잖아!" 하며 능청을 부려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쪽에서는 "총무(최정일)·회장(김미록) 글마들은 산에 안 오고 어데 갔노?" 하며 엉뚱한 데다 화를 뿐였다.

이날 부부조는 경북 구미에서 온 채경일 동문을 비롯해 서태복 정우광 손송방 이겸일 박영수, 니홀로조는 강양수(대구·금일봉 쾌척) 이명수 이맹립(동기회장) 황규정 홍정길 김찬문 김길정 강종국 동문(사무국장) 등 모두 20명이었다.

### 일육산악회 산꾼들 토박이 안내 믿다가 금성산으로 등정

## 이일회, 비경의 내야산서 경부합동산행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문경 대야산을 오른 제21회 서울·부산 동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21회동기회 제13차 경부합동 산행대회가 10월23일 경북 문경 대야산에서 용마가족 55명(서울 23명·부산-마산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재호 부산회장(본부 부회장)과 박신기 재경회장, 최재권 서울 산사랑회장, 경영천 일우산우회장(본부 용마산

악회 부회장)이 공동주관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인 오거돈 동문이 자리를 함께해 즐거움이 더했다.

내야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 내외선유동의 비경을 품고 있는 데, 추색 짙은 용주계곡 등으로 오르던 일행은 탄성을 절로 토해 냈다.

회영양 결혼. 017-587-8577

盧守德=(주)금양 회장. 11월5일 부산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장녀 결혼. (직장) 051-322-5881~3 · 011-863-0579

朴暎夏=11월27일 서울 GS 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 서 장남 준희군 결혼. 02-547-1433 · 019-553-1433

鄭鎮和=11월27일 모친 별세 趙鏞太=10월23일 장남 결혼 車英一=11월22일 부산시 문화상 수상

崔永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우성아파트 213-1501. 031-702-9614

李載敦=모친 별세 丁龍馬=12월3일 서울 팔

<5면에 계속>

### 남 우원군 결혼

李相學=12월17일 서울 GS 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 서 장남 준희군 결혼. 02-547-1433 · 019-553-1433

鄭鎮和=11월27일 모친 별세 趙鏞太=10월23일 장남 결혼 車英一=11월22일 부산시 문화상 수상

崔永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우성아파트 213-1501. 031-702-9614

李載敦=모친 별세 丁龍馬=12월3일 서울 팔

<5면에 계속>

## 20년 만의 귀국... 친구가 최고

박상수(10회·미국 뉴욕 거주)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86년 미국에 갔다가 드디어 19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1월 15일 일시 귀국하여, 고향인 청도에서 묵사에 참석하고 현재 91세 되시는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일은 11월 24일. 아마 이 글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저는 이미 미국에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경영소식을 통해서 들은 이모저모를 눈 앞에 보고 부러움과 아쉬움을 가슴 저미며 돌아갑니다.

만나고픈 동문들은 많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되돌아와서 그 동안의 회포를 풀고자 하니 이렇게 일일이 인사 못하고 가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나마도 다행한 것은 강남화요회에서 동문들의 따뜻한 열기에 접했던 일일 것입니다.

노후의 여유로움과 동문 간의 교류가



경영회 강남화요회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 박상수 동문(앞줄 가운데)이 미국으로 다시 떠나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란 말로 실감한 만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류를 갖기가 참 어려운 만큼 부러운 마음 또한 간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을유년을 보내면서

길을 끈다.

이 검사실 앞에는 25세 젊은 나이에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은 환자의 애절한 시가 남아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특히 소록도병원의 역사와 환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갖가지 자료가 전시된 생활자료관에 들어서면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병력자들 중 비교적 노동력이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조를 편성해서 그들을 3일 동안 동성교회로 모시고 와서 일일이 식사 대접을 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집 주위 청소 청소와 방제작업, 이·미용 봉사, 평상 만들기 등으로 땀을 흘렸다.

이어 '대민봉사'라는 작업명으로 동생리의 주민 집에 들어가서 거의 청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손과 발이 청소하기엔 무리였음) 안방과 부엌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그리고 방에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질문하는 의미있는 사랑도 나눴다. 그들은 비록 의모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나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한다. 그들에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귀한 정을 나누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절실했다.

이번 '소록도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240여 봉사자 모두는 누가 봉사자이고 누가 수혜자인지 분가하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보람을 느꼈다.

## 제37회 본부회장기 기별야구대회(부산) 전적상보

이 팀별 대전 전적은 역대 기별야구대회 기록 보존을 위해 해마다 대회 성료 후 일괄 게재하고 있습니다.

## 결승전

제28회 - 제35회  
(11월 5일 경남고 14: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3	0	0	0	0	0	3	0	2	8
제35회	0	0	2	0	2	0	5	2	×	11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34	5	8	5	2	·	·	7	2	3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8회	36	11	13	11	7	1	7	5	9	·
제35회	36	11	13	11	7	1	7	5	9	·

## ▲제28회

- ▷ 투수 = 김동규
- ▷ 포수 = 김부윤
- ▷ 3루타 = 조광제 김동규

## ▲제35회

- ▷ 투수 = 이태원
- ▷ 포수 = 박희찬
- ▷ 2루타 = 정문종 이태원 박희찬 한태영 김홍진 김동일

## 준결승

제35회 - 제39회  
(10월 30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	0	1	0	4	0	0		8	
제39회	2	0	0	0	0	1	0		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0	6	7	6	1	1	2	4	2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2	3	10	3			5	8		
제39회	32	3	10	3			5	8		

## ▲제35회

- ▷ 투수 = 이태원
- ▷ 포수 = 박희찬
- ▷ 홈런 = 박희찬(5회 3점)
- ▷ 3루타 = 박희찬

## ▲제39회

- ▷ 투수 = 하성표 정호현
- ▷ 포수 = 이승기

제27회 - 제28회  
(10월 30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7회	2	1	0	0	0	1	3		7	
제28회	0	2	0	2	1	5			10	

&lt;5면에서 발음&gt;

金吉帝 = 본부부회장. (주)M.S.C 대표. 055-389-1001

金吉出 = (주) 한국주철관 회장. 051-291-5481

金萬根 = 세황전자 대표. 055-251-9713

金勇基 = 국제통운 신선대 CY 상무. 051-630-5600

金用大 = 김용대 정형외과의 원 원장. 051-622-0024

金鍾喆 = 김종철세무회계사 무소 소장. 051-853-1601

南斗鎮 = 금강예식장 대표. 051-554-7500

朴道亨 = 바이칼 대표. 051-466-5407

徐富源 = 한샘주택 대표. 051-202-4212

李成一 = 본부부회장. (주) 삼보산업 부회장. 055-541-0130

張壽一 = (주) 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千斗甲 = 유니코 상사 대표. 051-319-3931

崔康登 = (주) 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

## 제 20 회

金鍾浩 = 11월 20일 별세

金鎮佑 = 10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들 민수군 결혼. 011-750-5043

吳景錫 = 동삼동 동장. 10월

徐富源 = 한샘주택 대표. 051-202-4212

李成一 = 본부부회장. (주) 삼보산업 부회장. 055-541-0130

張壽一 = (주) 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千斗甲 = 유니코 상사 대표. 051-319-3931

崔康登 = (주) 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

## 제 20 회

金鍾浩 = 11월 20일 별세

金鎮佑 = 10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들 민수군 결혼. 011-750-5043

吳景錫 = 동삼동 동장. 10월

## ▲제24회

- ▷ 투수 = 노상우 장연재
- ▷ 포수 = 박희찬

## ▲제27회

- ▷ 투수 = 조영일 최극림
- ▷ 포수 = 배기용

## ▷ 2루타 = 조영일 2개

제35회 - 제44회  
(10월 29일 경남중/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9	2	0	2	3	0	0		16	
제44회	3	0	0	0	0	4	3		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1	12	11	12	2	0	6	5	5	4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5회	31	10	13	10	1	0	3	4	9	0
제44회	31	13	11	12	10	0	7	2	8	0

## ▲제25회

- ▷ 투수 = 이세현
- ▷ 포수 = 박희찬

## ▷ 2루타 = 강문종(2개) 박희찬(2개)

한세영 조재현

## ▲제44회

- ▷ 투수 = 정순영
- ▷ 포수 = 조상희 장건식

## ▷ 2루타 = 장건식(2개) 최수성

신승훈 김정학

## ▲제28회

- ▷ 투수 = 김동규
-

## &lt;6면에서 받음&gt;

## 제43회 - 제44회

(10월 22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3회	2	0	1	0	2	0	0			5
제44회	0	6	3	2	1	3	X			15

제1회	34	5	9	5	2	2	6	10	2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제2회	24	8	6	8	5	5	6	3
-----	----	---	---	---	---	---	---	---

## ▲제19회

- ▷ 투수 = 정순일 이창근
- ▷ 포수 = 김중기 남준현
- ▷ 2루타 = 이창근

## ▲제24회

- ▷ 투수 = 정기준 노상우
- ▷ 포수 = 강종문
- ▷ 3루타 = 장한종
- ▷ 2루타 = 김학주
- ▷ 이방우 노상우

## ▲제43회

- ▷ 투수 = 강택룡 조성호
- ▷ 포수 = 김영희 이재용
- ▷ 홈런 = 권재광(3회 1점)
- ▷ 2루타 = 조성호
- ▷ 정대욱 김영희

## ▲제44회

- ▷ 투수 = 석상봉 정도영
- ▷ 포수 = 정진식
- ▷ 홈런 = 정진식(5회 1점)
- ▷ 김현석(6회 1점)
- ▷ 3루타 = 하태욱 석상봉
- ▷ 2루타 = 전광렬 최주섭

## 제22회 - 제28회

(10월 22일 경남중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5	2	2	1	2	0	0			12
제28회	2	1	4	2	0	7	X			16

제37회	36	10	14	10	3	7	6	11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제38회	32	5	11	5	3	2	2	7
------	----	---	----	---	---	---	---	---

## ▲제37회

- ▷ 투수 = 오기욱 소수현
- ▷ 포수 = 최치곤
- ▷ 2루타 = 서민표 양순남
- ▷ 김재현 조영규

## ▲제38회

- ▷ 투수 = 장철호 차정호
- ▷ 포수 = 꽈동열
- ▷ 홈런 = 박찬주
- ▷ 2루타 = 장철호 장지원
- ▷ 꽈동열 김태성

## ▲제22회

- ▷ 투수 = 김승규 김교철
- ▷ 포수 = 이민성

▷ 홈런 = 김교철(5회 3점)

- ▷ 2루타 = 이웅규
- ▷ 조홍기 박진수

## ▲제28회

- ▷ 투수 = 김기성
- ▷ 포수 = 김부윤
- ▷ 2루타 = 조광제 김동규
- ▷ 소유남 이용일
- ▷ 김부윤

## 제19회 - 제24회

(10월 22일 경남중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3	0	0	1	2	1	0			7
제24회	0	1	0	0	2	5	X			8

제25회	3	0	0	0	9	0	1			13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제29회	0	2	3	0	3	1	2			11
------	---	---	---	---	---	---	---	--	--	----

## 제26회 - 제29회

(10월 16일 경남고 13:20)

(10월 16일 경남고 13:20)

## &lt;6면에서 받음&gt;

崔敬容 = 구포성당 베드로 주임 신부. 051-332-6370 · 011-9751-6322

崔元鍾 = 한국허치슨터미널 (주) 대표이사. 본부동창회 직능모임인 "등대회" 신임회장에 피선. 051-630-8213 · 011-9748-5801

許 汶 = 11월 12일 장남 결혼. 010-4717-4397

## 제 23 회

金祥虎 =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 발령. (자택) 충남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 ▲제26회
- ▷ 투수 = 김현수
  - ▷ 포수 = 서정호
  - ▷ 2루타 = 정철주
  - ▷ 이영욱 최수일

- ▲제29회
- ▷ 투수 = 박기찬 장현경
  - ▷ 포수 = 김부겸
  - ▷ 2루타 = 박병준
  - ▷ 김세원 정상국

- 제36회 - 제40회
- (10월 16일 경남고 11:40)
- ※제40회 기권승

- 제31회 - 제34회
- (10월 15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1회	1	0	4	0	0	2	0			7
제34회	0	0	3	5	4	0	X			12

제31회	30	6	7	6	3		5	9	5	1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제34회	38	12	18	12	5		5	4	10
------	----	----	----	----	---	--	---	---	----

- ▲제31회
- ▷ 투수 = 김정덕 손정수
  - ▷ 안중수
  - ▷ 포수 = 안중수 김옥윤
  - ▷ 3루타 = 안중수
  - ▷ 2루타 = 조영기

- ▲제34회
- ▷ 투수 = 박철호 이채복
  - ▷ 포수 = 권대식
  - ▷ 3루타 = 배종문 권대식
  - ▷ 3루타 = 김태하 김한조
  - ▷ 배종문 이문걸

## 제41회 - 제44회

(10월 16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1회	1	0	1	1	0	3	0			6
제44회	4	0	2	4	0	4	X			14

제41회	28	5	7	5	2	8	5	8	1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타	사구	삼진	잔루	핸디

제44회	33	14	14	14	1	1	4	4		5

<tbl\_r cells="11" ix="1" maxcspan="1" maxrspan

# 제35회 대회 첫 '우승행가래'

최강 제28회 맞아 역전극 세 차례… MVP 한태영

## 본부 제37회 기별대항 야구대회

다크호스 제35회가 끝내 기별 야구 왕중왕에 등극했다. 제35회 동기회는 지난 11월5일 경남고구장에서 폐막된 제37회 기별대항 야구대회(부산 이벤트·주최 본부동창회·주관 경아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장담해 온 제28회동 기회와 한판 승부를 펼친 끝에, 11-8로 승리, 대회 첫 패권 쟁취의 감격을 누렸다. 이로써 제35회는 MVP(한태영)·최우수투수상(모재현)·감독상(박희찬)

을 찍쓸이했다.

**[전황]** 제35회가 타봉에 불이 붙어 승기를 잡은 것은 3회말. 1~2회까지 핸디 3점으로 뒤지고 있던 제35회는 정문종의 적시 2루타와 상대 야수 선택으로 2점을 올려 대추격에 나섰다. 이어 5회말 이태원의 2루타와 박희찬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 4-3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에, 제28회는 실망하지 않고 맞불작전을 떴다. 7회초 조광제의 3루타와 김동규의 동점타, 이용일의 2타점 3루타가 터져 6-4

재역전극을 펼쳤다. 온 구장은 응원단의 환호에 휩싸였다.

그러나, 운명은 7회말에서 갈라졌다. 제35회 선두타자 이태원의 안타와 박희찬의 적시 2루타, 김용진의 2타점 2루타가 터져 7-6 재재역전극을 펼쳤다. 이어 김동일 구동성의 안타로 추가점을 올려 9-6으로 리드했고, 8회말 신동현의 적시타와 한태영 희생타로 2점을 더 올려 11-6으로 승세를 굳혔다.

제28회는 9회초 조광제 김동규 김이청 이용일의 안타로 2점을



제35회동기회 용마가족들이 기별야구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한 후 감격을 누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가했으나 끝내 후배팀에 8-11로 패권을 뺏겼다.

△단체상 ▷우승 제35회 ▷준우승 제28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한태영 ▷최우수투수상:모재현 ▷감독상:박희찬(이상 35회) ▷수훈상:김부윤(28회) ▷타격상:1위 이태원(35회·6할2푼5리) · 2위 조영일



본부 용마바둑회장배 개인전 바둑대회 성황  
본부 용마바둑회장배 개인전 바둑대회 성황  
본부 용마바둑회장배 개인전 바둑대회 성황

## 강원경 (16회·최강부) 棋王 등극

본부 용마바둑회장배 개인전 바둑대회 성황

갑·을·병조 우승자  
정은수(22회)·최태영(24회)·정영화(13회)

스페셜 A·B부 우승자  
이상훈(11회)·양대모(17회)·김용엽(19회)

제5회 용마바둑회장배 바둑대회(개인전)에서 아마 최강부의 강원경 동문(16회)이 기왕(棋王)에 등극, 천하통일의 위업을 세웠다.

지난 12월4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용마바둑회 주관의 올해 대회는 23개 동기회에서 28개 팀 200여 명(선수 145명·응원단 60여 명)이 출전,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최강부를 비롯해 갑조(A·B), 을조(A·B·C), 병조(A·B), 스

페셜(A·B)부 등으로 구성됐다. 강동문은 이날 조원석(13회) 이상삼(13회) 양시욱 동문(25회)을 차례로 꺾어 3승을 올렸다. 준우승은 조원석 동문(2승1패), 3위는 양시욱 동문(1승2패)이 차지했다.

갑·을·병조와 스페셜A·B부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갑조=우승 정은수(22회)·준우승 손상수(20회)·3위 박의환(26회) △을조=우승 최태영(24회)·준우승 이명수(16회)·3위 성윤환(17회) △병조=우승 정영화(13회)·준우승 안명수·3위 소유남(28회) △스페셜A부=이상훈(11회)·양대모(17회)·공동1위, △3위 정정남(31회)△스페셜B부=1위 김용엽(19회)·2위 강우훈(17회)·3위 옥윤석 동문(16회).

## 대상 제13회 '덩더쿵'

### 제6회 본부회장기 용마산악회 등산대회

#### 최우수상 제21회

#### 우수상 제33회 차지

노장은 사라지지 않고 되려 건재일로(健在一路)였다.

제13회동기회는 지난 11월27일 남산제1봉(1,010m·경남 합천군 가야면)에서 열린 제6회 동창회 장기 용마산악회 등반대회에서

젊은 산우들을 따돌리고 영예의 대상을 차지, 이를 응변했다. 최수우상은 제21회, 우수상은 제33회가 수상했다.

본부 용마산악회(이하 용산회) 제24차 정기산행대회를 겸한 이날 행사 시상식은 오후 5시 백운장식당에서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수) 주재로 열렸다. 시상식은 회장 인사·내빈 소개·



제6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 용마산악회 등산대회에 참가한 동문·가족들이 경남 합천 남산제일봉을 등정한 후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해수 회관운영위원 공로패 제15회동기회, 현신정신 기려

제15회동기회는 지난 10월17일 오후7시 부산 중구 부평동 새진주식당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열고 화합

과 결속을 재확인했다.

김경일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유공자표창을 통해 동기회과 개설추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한해수 동문의 현신을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수여했다(사회: 최원수 총무).

본부회장 축사와 격려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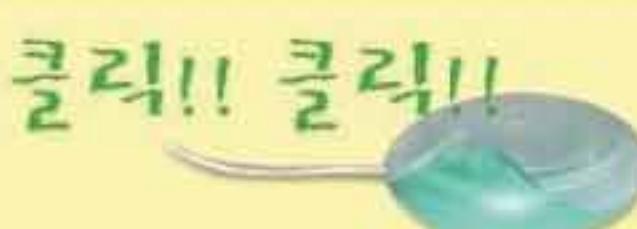
성적 발표에 이어 손용섭(22회) 포상위원장은 대상을 받은 제13회(연참가 37명)에 본부회장 기와 상금 50만원을, 제21회(연참가 36명)에 최우수상장과 상금 30만원을, 제33회(연참가 35명)에 우수상장과 상금 20만원을, 김미란씨(33회 김법영 동문 부인)에 특별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찬금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한동대(9회·용산회 명예회장)=50만원 △안강태(11회·본부 회장)=100만원 △제병민(13회·용산회 명예회장)=30만원  
△하영수(17회·용산회 부회장)=20만원 △기타

## 용마가족 177명 가야산 수놓아

이날 오전 8시 부산진역 앞에서 관광버스 2대에 분승, 출발한 일행 177명(동문 157명, 가족 19명)은 2시간40분 만에 합천 가야면 청량동 산행 들머리에 도착했다.

장비점검을 받으며 주의사항을 숙지한 일행은 산행에 돌입~청량사·매표소~청량사~농산정 갈림길(12:00~12:40 점식식사·휴식)~민초정(암자터)~정상(14:40)~하산 시작~오봉산 갈림길~집단 시설 지구 도착(15:50), 산행을 종료했다.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http://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  
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뛰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